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6월 23일(월) 제 3117호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전북 대표 브랜드 자리매김

전북중기청, 지역 명가 발굴
올 신규 포함 총 148곳 선정
스토리·판로·자금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전북지역 백년소상공인 8개사(백년가게 4개사, 백년소공인 4개사)를 신규로 지정했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백년가게 4개사는 임실군 상운암 전주식당, 부안군 식도락게장 전문점, 김제시 풍미각, 군산시 한길문고 나운점이며, 백년소공인 4개사는 남원시 지리산운봉주조영농조합법인, 무주군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덕유, 김제시 안시성옹기, 익산시 강남기업사 등이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해 현재 전북의 백년가게는 88개사, 백년소공인은 60개사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평가의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외에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평가는 경영지속 가능성,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이야기와 운영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12개) 신청시 가점(3~5점)과 우선 선정 등의 우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 외 중기부는 금융기관(KB금융 등), 대기업(롯데웰푸드 등), 공공기관(코레일유통 등) 등과의 민·관 상생협력도 강화하여 전용매장 구축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동행축제 등과 연계한 우수상품 기획전 등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는 오랜기간 자신만의 전통과 기술력을 갖추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전세희 전북중기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단순히 오래된 곳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자긍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로 도약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익산부시장 최재용
남원부시장 이성호
부안부군수 이정우
순창부군수 조광희

최재용 부시장

이성호 부시장

이정우 부군수

조광희 부군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최재용 익산 부시장, 이성호 남원 부시장, 이정우 부안 부군수, 조광희 순창 부군수 등 시·군 부단체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7월 1일자로 발령했다.

최재용(53세) 익산 부시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읍부시장, 농축산식품국장을 역임했다.

이성호(56세) 남원 부시장은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사회재난과장 드을 지냈다.

이정우(55세) 부안 부군수는 보건의료과장, 홍보협력팀장, 국제행사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조광희(52세) 순창 부군수는 전북자치도 주력산업과장, 경제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태 기자

장마 후 용담호 녹조 발생 선제적 차단 총력전

道·무진장·환경청 등 협의체 가동
저온 플라즈마 기술 등 다층 대응
EM흙공·정화활동 주민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녹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도는 지난 20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에서 전북지방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진안·무주·장수군 등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를 열고, 조류경보제 운영과 수질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는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이다.

민·관 협의체는 전북지방환경청과 3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한 조류경보제 운영, 수질자율관리 평가 준비, 수질보전 사업 추진상황 등이 중점 논의됐다.

현제 전북도와 관계기관은 선제적으로 조기 대응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지방환경청은 야적퇴비 관리와 배출시설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상류 오염원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심 15m 아래 물을 끌어올리는 심층취수, 수면 포기기 가동, 녹조 제거장비 투입 등 다층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진안천에는 녹조를 직접 분해하는 저온 플라즈마 기술이 새롭게 도입된다.

진안·무주·장수군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증설, 상수원 지킴이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3일 무주 안성면 구량천에서 EM 흙공을 투입하고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동 실천사업을 확대하고, 수질자율관리 평가와 장기적 수질개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육완만 전북자치도 물통합관리과장은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려면 도내 최대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이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주민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질개선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광대 현장의 모습 <사진=전주시>

후백제 '전주 종광대 토성' 道 문화유산 지정

후백제 왕도 북쪽 방어 거점
발굴 조사 후 정비 복원

후백제 도성으로 전주시의 북쪽지역을 방어했던 종광대 토성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전주 반태산(종광대) 일원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의 방어 기능을 담당했던 전주 종광대 토성(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산77-1번지 일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기념물)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주 종광대 토성은 성곽의 축조 방법과 특수성, 후백제의 시대 배경에 대한 전모가 밝혀졌고, 유물 및 문헌자료 등을 통해 시대성과 진정성의 가치를 담고 있는 유적으로 평가돼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북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통해 더 이상의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에 대한 보존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대한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성곽 평면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한 후 정비·복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 종광대 토성은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전주부 고적조에 '견훤이 쌓은 고토성'으로 기록됐다. 또, 조선시대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대동지지(大東地志)', '완산지(完山誌)' 등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되며, 1942년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전주부사(全州府史)'에서는 후백제 도성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전주 종광대 토성은 지난해 시굴 및 발굴조사를 거쳐 후백제 토성임이 확인됐다.

/정재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 완주공장 준공

특장차 자체 기술 생산
친환경 스마트 공장 설계
특장차 산업 중심지로

전북이 전국 특장차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물류 운송 특장차 분야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 테크노밸리 1산단에서 증설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군의원, 김수덕 ㈜골드밴 대표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골드밴은 1999년 설립된 특수차량 제조 전문기업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기반으로 한 냉동·냉장 특장차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공식 OEM 납품사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완주공장은 6,644㎡에 총 70억 원이 투입됐으며, 로봇팔 등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첨단 자동화 설비가 구축돼 고품질 생산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까지 고려된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됐다.

이번 증설을 통해 골드밴은 기존 화성 본사 생산기지에 더해 전주·완주권 중심의 전국 공급망을 확장하고, 향후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김수덕 ㈜골드밴 대표는 "이번 증설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장차 생산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며 "전북과 완주가 특장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물류 운송 특장차 분야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 테크노밸리 1산단에서 증설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골드밴은 전북이 자랑하는 특장차 대표 기업으로,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의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병기 "윤석열, 김용현 한꺼번에 구속해야"

김병주 "내란 수괴 활보 특검이 나서 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구속기간 만기로 보석이 결정된 김용현 장관의 석방 문제 등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장관도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김병기 대행은 "내란 특검은 어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 중 제1호 기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내란 특검이 제 할 일으 하고 있다"고 치켜 세웠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 시점 열흘을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김 권한대행은 "이것이 바로 진짜 정의 구현"이라면서 법원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음성파일 수백 건이 발견됐다"며 "4년 동안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게 놔둘 수는 없다. 특검이 나서야 한다"며 "김용현에 대해 추가 기소를 진행한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외환혐의 등 여죄를 들어 추가 기소하고 하루빨리 구속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전북도, 美 BIO USA 참관 6개 기업 해외진출 지원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메이요클리닉 파트너십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바이오산업 박람회인 'BIO USA 2025'에 참관해 세계적 의료기관인 메이요클리닉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북 바이오산업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BIO USA 2025 현장을 찾아 전북 기업들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BIO USA 2025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보스턴에서 진행됐으며, 전 세계 1,500개 기업과 2만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가해 신약개발, 기술이전, AI 기반 정밀의료 등을 논의하는 세계적인 행사다.

특히 올해는 AI 기반 신약 개발 및 정밀의료 기술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전북에서는 △메디코스바이오텍 △메디앤리서치 △바이엘티 △바스젠바이오 △플라스바이오 △바이오램프 등 6개 기업이 참가해 자사 기술을 선보였다.

이들은 거미실크단백질, 방사선 저항 미생물, AI 기반 임상 분석, 미세전류 화상 치료 등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 및 연구기관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어 19일(현지시간)에는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Cambridge Innovation Center)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CIC센터 내 전북 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CIC 입주기업 대상 IR 및 리셉션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미국 현지의 전문인 단체(KASBP, KAPAL)와 연계한 기술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 본원을 방문해 신경공학·정밀수술 연구소 및 사내 창업기업 '내비네틱스(NAVINETICS)'와 함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복합재 기반 뇌정위 고정장치 공동개발 △메이요클리닉 연계 한국 법인 설립 △의사과학자 육성 및 인력 교류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담고 있다.

이번 만남은 지난 4월 양측 간 업무협약 체결, 5월 메이요클리닉 켄달 리 소장의 전북 방문에 이은 후속조치로, 실제 투자 및 연구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전북 바이오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세계적 의료기관인 메이요클리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전북을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주진우 "김민석, 재산 허위신고" 주장

"6억 허위 해명 신뢰 상실"
지명 철회·자진 사퇴 촉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참여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20일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을 통한 수익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겨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의 스폰서 구태 정치의 자백, 즉각 사퇴 사안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김 후보자가)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 의원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6억 원의 현금 수익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 해명만으로도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즉각 사퇴하라.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며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임승식 도의원, 정읍 두승산 숲길 현장 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정읍시 두승산 숲길 공사 사업 점검을 위해 고부면사무소 공무원 등과 함께 현장을 지난 20일 방문했다.

정읍 두승산 숲길사업은 2023년 공사를 시작했으며, 숲속 자연과 교감하고 심신의 치유와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등산로 신설 및 정비, 전망데크 등 추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임승식 의원은 "유적지 정비와 생태숲길 조성으로 도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재충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동구 도의원, 군산 디오션루체 아파트 품질점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지난 20일 군산시 구암동에 조성 중인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 공동주택 품질점검 현장을 방문해 점검단 활동을 격려했다.

이번 품질점검은 설계·구조·토목·설비·전기·조경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준공 전 주요 공정의 품질과 시공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다.

김 도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최지은 시의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의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이 대표로 발의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 가구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1인가구, 장애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의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수행기관 지정 및 협약, 동행 매니저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최지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료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 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8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보존 양호 유네스코 도전

예수병원과 신흥학교, 기전학교, 선교사 묘역 등 전주지역 기독교 선교기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출범식이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양림동 오웬기념각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한국 각지에 위치한 기독교 선교기지를 보유한 8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행정협의회 성격의 기구로, 기독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모은 이유는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선교 역사가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없고, 국가유산청도 전국 각지의 선교기지가 잘 보존되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유산청이 발간한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선교기지는 조성 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진정성'과 '완전성' 조건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각 지역의 선교기지에 대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에 남아있는 기독교 선교기지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견된 7인의 선발대에 의해 1895년 만들어진 호남 최초의 선교기지이다.

전주 선교기지에는 근대기 의료선교 관련 예수병원과 간호학교, 선교사 사택, 선교사 묘역, 교육선교 관련 신흥학교, 기전학교 등 모두 15개의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예수병원과 신흥학교, 기전학교, 선교사 묘역 등 전주지역 기독교 선교기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사진=전주시>

이들 문화유산이 천년 고도 전주의 역사성을 근대기까지 확장해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일 뿐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도 우수한 만큼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했다.

/정재근 기자

이번 주 날씨 흐림과 비 오가

무더위·습한 날씨 지속

전북 지역은 이번 주 더운 날씨 속에 흐림과 비를 오가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 주간예보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이번 주 내내 최저기온 16~21도, 최고기온 28~29도 사이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흐림과 비 예보가 반복되는 만큼 외출 시에는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또한 비 예보가 있는 날 강수량이 높진 않지만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으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권장하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전망된다. 지난 주부터 시작된 열대야는 주말 사이 장맛비가 내리면서 잠깐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친 뒤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여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6월 23일 월요일은 전북은 맑은 날씨를 보이며 기온은 16~29도로 어제보다 2도 높은 수치다. 체감기온은 29.3도로 실제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고, 습도는 63%이며,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으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권장한다.

낮 동안 전북은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하늘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화요일에는 오전부터 흐림이 이어지고, 오후에는 강수 확률이 60%, 강수량 7mm 비가 예보됐다. 최고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1도 낮아지겠지만 지속되는 덥고 습한 날씨에 식중독 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도시락 구입 및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요일인 25일도 흐림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질 전망이고, 26일 목요일엔 오전에 비가 잠깐 오고 오후에는 비는 없으나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요일은 오전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다음날인 28일 토요일 강수량 39mm로 천둥·번개를·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9일 일요일은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선관위, 타인 명의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자 고발

교육감후보자후원회 등 가족 명의 총 9천만원 기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도내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각 5백만원씩 총 9천만원을 후원한 후원인 A씨를 지난 19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모씨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백만원씩 총 6천만원을, 2024년 5월 국회의원 C씨 후원회에 가족 등 4명의 명의로 각 5백만원씩 총 2천만원을, 국회의원 D씨 후원회에 가족 2명의 명의로 각 5백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액을 초과 후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해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및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사전 안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책쿵20' 참여서점 54곳으로 확대

신규 서점 3곳 업무협약

전주시민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정가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참여서점이 5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주시는 20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일요일의 침대(풍남동) △책방 흰바람벽(평화2동) △프롬투(중앙동) 등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신규 참여서점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책쿵20'은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과 지역서점과의 상생을 위한 전주형 특화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서점은 기존 51곳에서 54곳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때에도 권당 50포인트가 적립돼 추후 도서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책쿵20' 서비스에 가입한 전주시민은 3만3500여 명으로, 이들은 '책쿵20'을 통해 47만8600여 권의 도서를 구입해 약 16억1800만 원의 도서 구입 비용을 할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책쿵20'은 시민이 원하는 책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서점을 찾는 발걸음을 늘려 서점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서점이 함께 성장하는 전주만의 건강한 독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설공단, 여름철 우기 대비 특별 안전 점검

27개 시설·운행 차량 침수 위험 저지대 시설 보안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무료 주차장 115개와 체육시설, 공원 등 27개 시설 및 공단에서 운행하는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설별로 상주하는 직원들이 직접 실시하는 자체 점검과 함께 안전팀과 공단 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안전점검반을 통한 교차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이란 기상청의 예측에 대비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배수로 점검 및 퇴적물 제거 △배수관 파손 및 누수 확인 △배수펌프 등 침수 복구 장비 점검 등 시민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예방정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본격적인 장마철 전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이번 안전 점검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체계 가동

7·8월 두 달간 집중단속

전주시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앞두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 및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 전까지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미숙이나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유출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주요 하천인 전주천·삼천 인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하천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전주시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이 접수될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무단배출 행위나 오염사고 징후 발견 시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나 시청 상황실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전윤미 시의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 의원은 최명권 전주시의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함께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전주시의화 신유정 의원과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를 지목했다.

전윤미 의원은 "전주시의회도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여성지도자 소통·역량 강화 워크숍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은아)는 지난 20일 완주 경천애인마을에서 소속 임원 등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전주시 여성지도자 소통·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 지도자들이 소통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여성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여성 단체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오효신 에듀드림연구소 대표의 '성공하는 여성 리더의 소통 방법' △박성철 미래성장 교육연구소 대표의 '행복을 부르는 교통안전' 등의 특강이 진행됐다.

온은아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국산 파프리카의 가능성을 발견하다'

전북농기원 개발 파프리카 소비자 대상 현장 홍보 종자 자립 확산 의지 다져

기후변화와 종자 수입 의존이 심화되는 농업환경 변화속에서 전북지역에서 개발, 육성한 국산 파프리카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높이고 있다.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운봉농협과 함께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로비와 야외 공연장 앞에서 직접 개발한 파프리카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 따뜻한 공감대를 나누기 위한 '국산 파프리카 홍보·판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육성하고 남원 운봉 고랭지에서 재배한 파프리카를 도민들에게 소개하고, 그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현장에는 ▲육성 품종 전시 부스 ▲시식 행사 ▲판매 부스가 운영되었다. 도민과 유통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방문객들이 참여해 국산 파프리카의 신선함과 경쟁력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장에서는 품종 전시와 기술설명회도 함께 진행되어, 농업기술원, 생산자, 유통업계가 함께 국산 종자 확산을 위한 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파프리카 산업은 수입 종자 의존도가 95% 이상으로, 매년 종자 비용 부담과 품질 불안정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국산 품종의 현장 안착 가능성과 종자 자립 기반 확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춘향골바래봉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박태성 회장은 "기술원에서 육성한 국산종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몸소 느꼈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수입 종자보다 경제적이고, 생육 안정성도 높아 앞으로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다"고 현장의 만족감을 전했다.

전북농업기술원은 20일 도청 로비와 야외공연장 앞에서 직접 개발한 파프리카 홍보 판매 행사를 열었다. <사진=전북농기원>

최준열 전북 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전북육성 파프리카 품종의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제로 슈거 소주의 대표주자 '새로'

산뜻, 부드러운 맛 애주가 인기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22년 9월 중순 첫 선을 보인 '새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Zero Sugar)'소주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또한, 소주 고유의 맛을 지키기 위해 증류식 소주를 첨가했으며 주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새로'는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담은 도자기의 곡선미와 물방울이 아래로 흐르는 듯한 세로형 홈을 적용해 한국적이며 현대적인 감성을 녹임과 동시에 투명병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새로'는 '부드러운 목넘김과 알코올 특유의 향이 덜해 마시기 편하다' 등의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22년 9월 14일 출시 이후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병을 돌파했으며, 출시 7개월여만에 누적 판매 1억병을 돌파했다.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출시 2년여만인 2024년 10월에는 누적판매 5억병을 돌파했으며, 작년 봄에는 살구 과즙을 더한 '새로 살구', 올 봄에는 참다래 과즙을 더해 새콤달달한 맛을 살린 '새로 다래'를 선보이는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또한, '새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2023년 9월 성수동을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 대구로 장소를 옮기며, 새로의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팝업 스토어 운영 등 적극적 마케팅을 펼쳤고, 올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서울 압구정에서 팝업스토어 '새로도원'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작년 6월에는 미국 시장 진출 1주년을 기념한 유명 클럽과의 콜라보 마케팅 및 게릴라 판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국내 소주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새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주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공=롯데칠성>

전북도, 경제위기 지역특화 대응 시스템 구축 착수

9개 기관 실무협의 TF 가동 경제변화 예측해 선제적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등 9개 유관기관과 함께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조례'가 제정(2025.3.7.)됨에 따라 경제 위기감 확산에 대응하고 도의 경제 위상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지역단위에 특화된 경기변화 예측 시스템과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이에 앞서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실무협의 TF를 운영한다.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은 최근 글로벌 및 국내 경제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제적 대책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을 비롯한 도내 경제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필요성 및 추진방향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모델 및 조기경보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계획 △ 실무협의 TF 역할 및 운영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상장률을 작년 대비 0.5% 낮춘 2.8%로 전망했다.

국내의 경우 새정부 출범 이후 정국 불안은 다소 완화됐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 현상'과 건설업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전북도는 20일 9개 유관기관과 경제위기대응시스템구축 실무협의TF 킥오프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이에 따라 KDI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당초 1%대에서 0.8%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전북에 특화된 조기경보지수 개발, 지역경제지표 모니터링 체계 연차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TF 역할에 대해 논의 했다.

도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실무협의 TF 위원의견 수렴 및 자문 회의를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혀간다는 계획이다.

서재영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경제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실습형 안전교육' 전면 지원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초·중·상급 단계적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산업재해 예방 교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이로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이론부터 실습까지 통합된 전문 안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법정 의무교육을 넘어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작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군산시 소재 중장비 전문 교육기관인 '삼영종합중장비학원'에서 진행되며, 크레인 줄걸이 등 하역기계 작업에 종사하는 현장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교육과정은 근로자의 숙련도에 맞춰 △초급(S1): 줄걸이 작업 개념과 작업자 역할 이해, 장비 점검 기본지식 △중급(S2): 슬링 방식 실습(와이어로프, 벨트 슬링 등) △상급(S3): 장력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검출과 대응 실습 등 3단계 체계로 구성되어 실무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초급 과정 수료 후 중급·상급 과정으로 연계 교육이 가능해 교육 참가자의 수준별 맞춤형 학습과 성장이 가능하다.

올해 교육은 초급(S1) 과정을 시작으로 오는 26일·27일·30일 총 3차례에 걸쳐 순차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이 중소사업장 현장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고를 막는 실질적 조치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과 밀접한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터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민관 협력 첫발

유관기관·생산 참여 영농법인 기술 실용화 협력 성공 조성

농촌진흥청은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관련 기관과 영농법인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성공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제 새만금사업단(사업단)은 새만금 7-1공구(800ha) 499헥타르(ha)에 밀, 콩, 고구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 재배하는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2024~2043)에 따른 것이다.

사업단은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조성에 참여할 영농법인 3개를 선정했으며, 해당 영농법인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립식량과학원 고종철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양기춘 차장, 대동농기계 임종민 과장, 한마음영농법인 장수용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식량 자급 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원료곡 공급 시범 모형(모델)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미래 융복합 농어업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기술 자문 및 정보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영농계획 및 현장 애로사항 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간척지에 적합한 수입대체 작물 도입 △정밀 토양 분석 기반 양분 관리 기술 △무인기(드론)·위성 기반 기술 현장 적용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농촌진흥청은 20일 김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이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기반으로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새만금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기술 실용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 4월 여신 늘고 수신 줄었다

금융기관 여신 3,320억 증가 수신은 1.1조 감소, 격차 확대

2025년 4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 증가폭(25.3월+1,784억원→4월+3,320억원)은 확대로 나타났다.

기관별에는 예금은행(+890억원→+2,415억원)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895억원→+905억원) 증가폭이 모두 확대됐으며,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628억원→+2,456억원)이 확대되고 가계대출(+478억원→+230억원) 증가폭은 축소로 확인됐다.

2025.4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수신(25.3월-3,713억원→4월-11,044억원)은 감소폭 확대로 집계되며, 기관별로는 예금은행(-2,229억원→-15,130억원) 확대, 비은행예금취급기관(-1,484억원→+4,086억원)은 증가로 전환했다.

2025년 4월중 예금은행 여신 증가폭(25.3월+890억원→4월+2,415억원)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기업대출(+69억원→+1,560억원)은 증가 전환, 중소기업 가계대출(+985억원→+843억원)은 주택담보대출 축소, 기타대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5.4월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25.3월+895억원→4월+905억원)은 확대됐으며, 기관별로는 상호금융(+755억원→+499억원)과 신용협동조합(+285억원→+210억원) 등 축소, 새마을금고(-233억원→+325억원)은 증가했다.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 증가폭이 확대(+559억원→+896억원)되고, 가계대출 감소폭(-507억원→-614억원) 또한 확대됐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2025년 추경예산안 1조 405억 편성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AI·딥테크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1차에 이어 171억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2백만원 확대해 연말까지 최대 6백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창업패키지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을 확대 편성했다.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해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등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립예술단 연합 공연, 창작음악극 '해어화'

오는 7월 4~5일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선봬

전주시립극단과 전주시립합창단, 전주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국악단이 연합으로 공연하는 창작음악극이 펼쳐진다.

전주시립예술단은 오는 7월 4일 오후 7시 30분과 7월 5일 오후 4시, 총 2회에 걸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창작음악극 '해어화'를 선보인다.

전주시립예술단은 매년 극단·합창단·교향악단·국악단이 연합해 합동 공연을 제작해 선보이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국내 공연예술문화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번 '해어화' 공연은 전주시립국악단 심상욱 예술감독이 총감독 겸 지휘를 맡았으며, 조민철 전북연극협회장이 연출을, 전주시립합창단 김철 예술감독이 합창 지휘를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창작음악극 '해어화'는 지난 2016년 개봉된 동명의 영화를 모티브로, 1940년대 전주권번을 배경으로 최고의 예인이 되길 꿈꾸는 기생 소율과 연희, 그리고 시대를 풍미한 천재 작곡가 윤우의 얽히고설킨 사랑과 예술, 운명의 서사를 그려낸다.

'해어화(解語花)'는 '말을 이해하는 꽃', 곧 기생이자 예인을 일컫는 말로, 이번 작품은 그 의미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해 무대 위에 풀어내며 전통의 감성과 서사를 통해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백하룡 극작가의 각색으로 전주의 전통문화 자산인 전주권번을 중심 배경으로 재창작됐으며, 작곡가 이정호의 음악이 더해져 전통 음악의 한(恨)과 흥(興)이 조화를 이루는 깊이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연은 전주시립예술단이 하나돼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면서 "다채로운 예술이 한 무대에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이 시민들께 깊은 감동과 잊지 못할 예술적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 입장권은 R석 1만원, S석 7000원이며 나루컬쳐(www.naruculture.com) 또는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 학생(초·중·고) 및 단체(20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다둥이카드·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재근 기자

전북 농어촌유학, 수도권 학생·학부모 주목

'2025 국민팜 엑스포'서 전북교육청, 농어촌유학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국민팜 엑스포'에 참가해 전북 농어촌유학의 우수성과 교육적 특색을 홍보한다.

이 '2025 국민팜 엑스포' 박람회는 농촌 정착 활성화와 귀농·귀촌, 농촌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일보가 주최한다.

전북교육청은 박람회장에 농어촌유학 상담(홍보) 부스를 설치해 전북 농어촌유학의 운영 방식·참여 절차·유학생 지원제도·특색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현장을 찾은 참여 희망 학부모 및 학생들과의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해 전북 농어촌유학에 대한 흥미과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전북 농어촌유학은 현재 도내 28개 학교에서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체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2025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모집 결과 서울 29명, 경기 31명, 인천 4명, 울산 5명, 충남 4명, 부산 4명 등 총 88명이 신청을 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체재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전북 농어촌유학의 교육적 가치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박람회와 설명회, 체험 행사 등을 꾸준히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전북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보육교사 교육 '실효성 ↑, 부담은 ↓'

주중 보수교육 도입 전북 첫 시도

전북대학교 아동학과(학과장 김태연)가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단이 유·보통합을 대비한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존이 시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올해 가장 주목할 변화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처음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주중 교육을 도입한다는 점이다.기존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로 인한 피로 누적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북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센터들과 협력해 대체교사 우선 지원 체계를 갖추고,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평일 5일간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중 유일하게 교육비 환급이 되지 않아 수강생들의 부담이 큰 원장 사전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교육생 1인당 2만 원을 직접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육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론과 실무 전문지식을 갖춘 전북대 아동학과 전임교수와 외부 전문가들이 고르게 교육에 참여해 단순 이수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효성 있는 역량 향상 교육으로의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전문직원 40명 선발

유치원·초등·중등 교사 소양·현장·역량평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2025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최종 합격자 40명을 발표했다.

학교급별 최종 합격자는 유치원 교사 8명, 초등교감 1명, 초등교사 18명, 중등교사 13명이다.

2025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은 4월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지난 14일까지 총 3단계의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1차 소양평가는 현장실무능력·전북교육정책·정책기획능력을 평가했고, 2차 현장평가는 공개검증·직무수행계획서 평가·자기소개서 및 교육활동 실적평가· 교직원 면담·인성 및 동료교직원 다면평가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3차 역량평가는 심층면접과 상호·토의토론으로 구분해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선발된 교육전문직원은 유·초·중등 일반분야 및 전문분야, 유치원임기제분야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되어 학교 현장을 지원하게 된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적 경험을 토대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있는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했다"며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전문직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제1회 전북교육발전대상 시상식 성료

수업혁신 부문 이해영·정민수 교육헌신 부문 양종갑 씨

전북교육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교직원과 도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교육적 표상으로 삼고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전북교육발전대상' 시상식이 지난 2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는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전용태 부위원장, 박정희 의원, 강동화 의원을 비롯한 내빈 및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초대 수상자로는 △수업혁신 부문에 이해영·정민수 수석교사 △교육헌신 부문에 양종갑 님 △교육협력 부문에 완주군, 순창군이 선정됐다.

수업혁신 부문 대상을 받은 이해영 수석교사는 한글 교육을 위한 '우리 아이 읽기·쓰기 어떻게 지도할까?'와 문해력 향상을 위한 '초등 어휘사전 1600'개발을 주도하는 등 문해력 지도의 달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민수 수석교사 역시 교육포털 '수업도시락 엠디랑'을 개발 및 운영하고,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실천하는 등 전북교육계를 대표하는 수업 연구와 나눔의 선구자이다.

교육헌신 부문 대상을 받은 양종갑 님은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모은 전 재산 20여억 원을 장학사업을 위해 쾌척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다.

교육협력 부문 대상을 수상은 완주군과 순창군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전북 농어촌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자체-교육청 협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종민(전북대 명예교수) 심사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1,000쪽이 넘는 심사자료를 보며 치열하게 논의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며 "결과적으로 각 부문을 대표할 최적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어진박물관, '왕을 모신 가마' 특별전

21일~8월 31일까지 운영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상설전시실 중 하나인 지하 1층 가마실의 새단장을 기념해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왕을 모신 가마' 특별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872년 경기전에 태조어진을 봉안할 때와 1771년 조경묘에 조선왕실의 시조 이한과 그의 부인의 위패를 봉안할 당시 사용된 의례용 가마들을 집중 조명한다.

전시되는 가마들은 관련 문헌 기록과 의궤를 통해 제작 시기와 기능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며, 봉안 의례에 사용한 현존 유물 가운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자료이다. 2020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봉안에 활용된 여러 의식구와 함께 전북도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선옥 전주시 전주박물관장은 "그간 어진박물관의 가마실은 오랜 기간 별도의 개편 없이 운영돼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단장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면서 "개편된 가마실을 통해 국보 태조어진을 봉안할 때 활용한 여러 유물 또한 함께 조명돼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진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근 기자

익산시, 민·관 등 3차 협약 주얼리 산업 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장인과 청년이 함께 빚는 주얼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패션산업시험연구원(대표 민충기),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회장 이문규)와 함께 '2025 주얼리 뿌리기능경기대전 및 디자인 공모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익산의 대표 산업인 주얼리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인재 양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기능경기대전 및 디자인 공모전의 공동 기획 및 운영 △참여 유도와 홍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재정적·행정적 지원 △성과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과 창의적 감각을 지닌 청년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확대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고군산섬잇길, 온라인 이벤트 7~9월도 풍성

군산시가 고군산섬잇길(말도·명도·방축도)을 중심으로 한 K-관광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군산섬잇길 다달이 온라인 이벤트'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K-관광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섬 관광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행사로 K-관광섬의 홍보를 계절, 행사 등과 엮어서 다양한 주제로 기획된다.

현재 6월에는 '낱말 찾아 떠나는 고군산섬잇길!'을 주제로, 빙고판 속 숨은 섬 찾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7월은 여름철 인기 콘텐츠를 주제로 한 '섬에서 뭐 할래?' △8월은 필름 카메라 행사와 연계한 '소문내기 이벤트' △9월 '섬속 틀린 그림 찾기' 등 다양한 형식의 홍보 행사가 순차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번 온라인 행사도 K-관광섬 인스타 공식 채널을 통해 운영된다. 이미 3~5월까지 세 차례 진행된 이벤트에서는 총 4,5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근대미술관, '민병헌 그레이' 초대전 개최

군산근대미술관(구 18은행)이 오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민병헌 작가 초대전'민병헌 그레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촬영부터 인화까지 모든 과정을 손수 진행한 아날로그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작품 20여 점이 출품된다.

'아날로그 사진의 대가'로 불리는 그는 흑과 백 사이 무수한 회색조를 정교하게 조율하며, 사진 속에 서정적 감성을 녹여내어 왔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역시 빛과 원근을 일부러 배제하고 흐릿한 화면 속에서 피사체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동양화 혹은 추상화를 연상케 하는 고유의 회색 세계를 고스란히 선보인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마을전자상거래 순항‥올 20억 매출

안정적 유통 채널 자리매김 설·계절 기획전 등 판촉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안정적인 유통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익산시는 마을전자상거래가 농산물 가격 변동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판매 실적을 이어가며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 20억 원을 달성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망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의 결과다.

시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고령농·여성농이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값 받는 농산물 판매를 지원해 농업인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맞이 기획전, 봄·여름맞이 행사 등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에 이바지하고,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 방문과 만족도 조사도 진행했다.

특히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4일부터는 양파 소비촉진 기획전을 진행해 농가 소득 보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높여 반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과 잔류농약 검사,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품질 관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본격 장마 취약시설 선제 점검

이학수 시장 현장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9일 장마철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조, 배수펌프장, 홍수특보지점 등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점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대실지구 우수저류조를 시작으로, 슬러지 퇴적 상태와 펌프 운영 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그는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 지역의 철저한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유지한 채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과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 부서가 협력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9일 장마철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조, 배수펌프장, 홍수특보지점 등을 직접 점검했다 <사진=정읍시>

/정읍=김정인 기자

'치킨로드'로 익산 구도심 불 다시 밝힌다

'삼남극장' 3호점 오픈

익산시가 중앙동 구도심 일대에 조성 중인 '치킨로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 세 번째 주자로, 익산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삼남극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삼남극장'은 지난 20일 극장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점을 알렸다. 지역 예술인과 공연단체가 참여해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과거 극장의 추억을 공유하며 색다른 경험을 즐겼다.

1977년 창인동(현 중앙동)에서 운영된 삼남극장은 한때 지역의 대표 공연장이었다. 하춘화, 고(故)이주일 등 당대 최고의 인기가수와 코미디언이 무대에 올랐고, 시민들의 웃음과 감동이 오갔던 장소다.

익산시는 이 특별한 공간에서 영감을 얻어, 치킨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복합 외식문화 공간을 탄생시켰다. 삼남극장에서는 닭불고기와 전기구이닭을 판매한다.

치킨로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이자, 지역의 스토리와 정서를 담아낸 문화 공간이다. 치킨을 매개로 다양한 컨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점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며, 중앙동 거리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의회 특위 "새만금항 실질 운영, 우리가 적임자"

"126년 항만 경험 활용돼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이하 새만금특위)는 지난 19일 '새만금항 원포트 체계 구축에 따른 군산시 관할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새만금 특위는 지난달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군산항과 내년 개장을 앞둔 새만금 신항을 '새만금항'이라는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원포트)으로 지정한 것은 전북 해양물류 체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원포트 지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행정적 통합을 넘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각기 특화된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 재편으로 군산항은 중소형 선박·기존 산업 물동량을 새만금신항은 대형 선박·미래 신산업 물동량을 담당하여 전북 해양물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조성되는'새만금항'은 수역과 매립지는 군산시 관할구역 내에 있고, 신시도와 두리도 사이 해역을 매립해 건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는 주권자로서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에 있어 선제적 대응은 당연한 책무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산시는 126년간 축적한 해양행정과 항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법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권리주장을 통해 새만금신항 관할권(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포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간 기능 분담 및 해양기반 인프라 구축 등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와 물류 인프라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형 선박과 중소형 선박의 물동량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투자 유치를 병행해야 하며, 새만금신항은 국가 기간물류망과 직결되는 해양기반 인프라 중심 항만인 만큼, 실질적인 운영과 배후단지 조성, 해운업체 유치 등 주요 역할은 풍부한 경험과 행정역량을 갖춘 군산시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새만금항 발전은 도시경관 개선과 친수 공간 조성 등 항만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과 함께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군산시는 시민과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토대를 다져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지양하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만금특위는 앞으로도 항만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협력, 주민 생존권 보장, 항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균형 있는 항만 정책과 실질적 개항 준비를 선도해 전북 해양물류의 현장 중심 행정을 책임지는 군산시가 될 것이라며 끝맺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백정기 의사 순국 91주기 좌담회

선양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백정기 의사의 순국 91주기를 맞아 정읍시에서 열린 좌담회는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업적과 정신을 조명하며, 앞으로의 선양사업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영원면에 위치한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서 구파 백정기 의사의 순국 제91주기를 기념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백 의사의 독립정신을 지역사회에서 재조명하고, 지속적인 선양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는 아흐K로컬콘텐츠연구소 백남이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홍로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정읍시와 기념사업회의 그간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얼학회 이도형 회장은 효창공원에 안장된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3의사의 비교와 인지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백 의사 선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자유 토론을 통해 향후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 좌담회는 백정기 의사 선양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사의 업적과 이념, 독립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좌담회 녹화본을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E'에 게시해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내장산협치위'서 인구늘리기 호소

지역 상생 방안 공동 모색

내장산국립공원 협치위원회에서 정읍시가 지역사회에 인구늘리기 동참을 호소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19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치위원회는 지역사회와의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과 공원 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공원관리 현안과 올해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읍시를 비롯해 정읍시환경교육센터, 민간산악구조대, 내장사,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인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지역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시청 관광과는 현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구감소 대응 (생활)인구 유입 및 확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정읍愛(애) 주소 갖기' 캠페인과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에게는 전입 시 혜택, 청년지원 정책, 정읍형 인구정책을 담은 안내 책자도 함께 배부돼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정인 기자

2025년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지방재정·참여예산 이해

시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도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학교'가 지난 20일 개최됐다.

'시민참여예산학교'란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이날 교육은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송윤정 강사가 진행했으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및 읍면동 지역위원회 위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구성 및 이해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이해와 운영 △시민참여 예산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제안서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올해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사업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시간여권 들고 떠나는 익산 골목 기행

'이리열차 시간정거장 어게인'

시간여권 한 장으로 익산의 골목에서 펼쳐지는 시대 여행이 시작된다.

익산시는 오는 28일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뉴트로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솜리골목기행: 이리열차 시간정거장 어게인'이 열린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마수리늘배움협회가 주관하는 생생국가유산사업으로 마련됐다.

생생국가유산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익산의 근현대사 유산을 시대별 '정거장'으로 재구성해, 참가자들이 '시간여권'을 들고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해설 중심의 유산 체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골목과 공간을 무대로 한 체험형·몰입형 콘텐츠로 구성돼 참여자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마수리늘배움협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마수리늘배움협회로 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관광택시, 적극행정 사례 '주목'

명소 연계 교통 수단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실질 소비 유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외지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부안 관광택시'가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실질 소비를 유도하는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문 기사가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는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으로, 관광객 전용으로 운영돼 부안군민은 이용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외부 관광객의 편의성과 이동 접근성을 높이고, 부안의 다양한 명소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관광객은 전화로 코스를 예약하고, 기사와 함께 원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관광택시는 1대당 최대 4명까지 동승할 수 있으며, 코스별 이용요금은 3시간 4만 원, 5시간 6만 원, 6시간 7만 원으로 운영된다.

여행 시간과 일정에 맞춰 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 그룹 관광객에게 특히 적합하다.

부안군은 관광택시 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해 관광택시 기사 대상 친절 서비스, 응급처치, 관광사진 촬영, 해설 교육 등 전문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행가는 달',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에는 50% 요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관광자원 연계, 프로모션 홍보, 택시 배차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 관광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관광택시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 쇼핑, 체험 등을 함께 즐기면서 지역 상권으로의 소비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지출도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택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 등 재해 노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노동환경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2025년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대리운전, 방문 학습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일반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공동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이들은 근무 중 사고는 물론 폭염·한파와 같은 기후 재해에 쉽게 노출되지만, 업종 특성상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리기사 및 배달업(음식 또는 퀵서비스 등) 종사자 또는 관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관련 업종의 사업주이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시청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wls0720@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김제시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현장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공용버스터미널, 임시터미널로 이전

도시재생혁신지구 공사
7월 7일부터 이전 운영

다음달 7일부터 고창 농어촌버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객들은 임시터미널(고창읍 하나로마트 옆)을 이용해야 한다.

지난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오는 7월 7일부터 고창터미널을 임시터미널로 이전해 운영한다.

임시터미널은 고창읍 목화예식장과 농협하나로마트 사이(읍내리 675-2번지)로 현재 차량대기공간 및 간이매표소, 대합실 등의 공사가 마무리 중이다.

동시에 터미널 철거공사도 시작된다. 임시터미널 운영에 맞춰 터미널 매표소 건물 또한 해체계획서를 작성중이다.

터미널 뒷상가 철거 공사 중 먼지와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가림막도 설치된다.

군은 농어촌버스 광고, 공공디자인팀의 읍·면 방문 안내 등 임시터미널 이전 운영 사전 홍보 추진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고창군의 중심지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고창군의 랜드마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도시침수위험지역 합동점검

장마철 대비 맨홀 뚜껑
개폐 상태 등 집중 확인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19일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과 함께 도시침수 위험지역 중 옥산동 진주아파트 일대의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시 다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현장 점검은 △빗물받이 및 우수관 연결 상태 △맨홀 뚜껑 개폐 상태 △빗물펌프장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우수배관 내부 준설 작업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도시설을 점검해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전북지방환경청에 침수지역 개선으로 현재 추진 중인 노후하수관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긴급하게 필요한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물 준설 사업에 필요한 국비 7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정 시장은 "올해도 장마와 태풍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지방환경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시설 정비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홍보를 같이 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정성주 시장
"보육·육아지원 발전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김제의 내일을 지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관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20일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요촌길 45)의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과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위탁업체로 선정된 우석대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관식을 축하했다.

개관식에 앞서 김제제일 어린이집 원아들과 도립국악원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된 지평선어울림센터에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했으며, 협소한 주차장을 확장 정비하고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석대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5년간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실내 놀이터, 장난감 대여실, 요리 체험실, 도란도란 대여실, 무지개 도서관, 마음보듬실, 생각나눔실 등 아이와 부모님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돼 수준 높은 맞춤형 보육지원과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 육아서비스센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리모델링 기간 참고 기다려주신 시민들에 감사드리며, 영유아와 부모,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 및 육아지원 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청년의 시선으로 정책을 뒤집다'

24일 청년포럼 개최

부안군은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시선에서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2025 부안 청년포럼을 오는 24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청년의 시선으로 정책을 뒤집다'를 주제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오며 느낀 현실과 고민을 공유하고 보다 발전된 부안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김동영 센터장이 강연자로 나서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청년세대가 로컬에서 느끼는 매력과 가능성 및 국내·외에서 추진된 우수 청년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부안의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2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현실적인 고민과 희망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내가 바라는 부안의 모습'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 제기된 지역 문제에 대해 기존의 시각을 전환하는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지역 변화의 주체이자 기획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민속경기' 전통놀이 활성화 도모

민속경기대회 성료

고창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창군민속경기협회가 주관한 '2025년 고창군민속경기대회'가 20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통놀이를 활성화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14개 읍면 주민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고리걸기(남,여), 투호(남,여), 제기차기(남) 등 민속경기를 펼치며 친목을 다졌다. 성적 우수팀에는 고창특산품을 시상품으로 전달했다.

장한수 민속경기 협회장은 "이번 민속경기 대회가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더운 날씨에도 민속경기 대회에 참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체납 지방세·차량 과태료 징수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확대해 체납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기존 상·하반기 합동 영치로 연 2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난 2024년부터 주 4회 상시 영치, 월 2회 야간영치 및 읍면동 권역별 합동 영치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장기간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성실 납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시는 2024년 차량 472대를 영치해 체납액 1억9천7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6월기준 차량 170대를 영치해 체납액 5천4백만원을 징수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정기분 세목 부과달은 납부 독려를 위한 거리 홍보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해 체납 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7월 1일부터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부안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오는 7월 1일부터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추진됐으며 접종 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50세 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군민이다.

접종은 생백신 1회로 이뤄지며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거나 면역저하자 등 생백신 접종 금기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상포진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경과 한 경우만 접종이 가능하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연령대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는 50세 이상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보다 많은 군민이 조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마실영화관 작은 영화관 사업 선정

부안마실영화관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운영하는 작은 영화관 기획전 상영 지원사업 참여 영화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기획전 사업에는 전국 작은 영화관 27곳이 지원해 15곳이 선정됐으며 부안마실영화관도 최종 선정돼 부안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영화 관람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영화관 기획전은 기존에 접하기 힘든 고전영화와 독립·예술 영화를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상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부안마실영화관은 상영료와 대관료 및 홍보 비용으로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안마실영화관은 기획전 홍보를 위해 면단위별로 찾아가는 기획전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작은 영화관 기획전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안마실영화관과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공동육아나눔터 1·2호점 현장점검

고창군이 지난 19~20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2호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창군 공동육아나눔터는 신한금융그룹의 리모델링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설비를 갖춰 보호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상시 돌봄 △발달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품앗이 활동 △돌봄 공간 제공 등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폭넓게 운영하며, 고창군의 대표적인 육아 지원 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공동육아나눔터가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봉동 소각장 공청회 "주민 외면" 논란

김재천 "졸속·기만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답변 부실 지적
완주군 "환경청에 반대 제출"

지난 19일 완주산단일원서 열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공청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진=완주군>

지난 19일 완주산업단지 일원에서 열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 주민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주민공청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는 형식만 갖춘 전형적인 요식행위였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닌, 단지 절차적 요건을 채우기 위한 졸속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사업자는 핵심 쟁점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지 않았고, 일부 설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다"고 힐난했다.

문제가 된 이번 사업은 ㈜삼비테크가 봉동읍 구암리 537-6번지 일원(1만7,766㎡)에 설치를 추진 중인 스토커 방식 폐기물 소각시설 2기로, 하루 최대 189.6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다. 이 중 일반폐기물은 132.72톤, 지정폐기물은 56.88톤에 달한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 유해물질 배출, 건강 피해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완주군은 주민 반발과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에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한 바 있다.

김재천 부의장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시민도예대학은 19일 '라쿠 특별강연 및 전통가마 소성'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남원시>

남원 시민 도예가들, 전통가마에 불 지피다

라쿠 작가 시민도예대 강의
수강생작품상설전 7월까지

남원시 운영 시민도예대학에서 지난 19일부터 펼쳐진 '라쿠Raku 특별강연 및 전통가마 소성'이 지역작가와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도예문화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라쿠Raku'로 널리 알려진 김영수 작가의 특별강연을 비롯해 전통가마 화입식과 소성 과정, 그리고 시민도예대학 수강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상설전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19일 '라쿠Raku' 특별강연과 전통가마 화입식은 라쿠소성 특유의 역동적인 불의 미학과 전통가마 소성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꿈꾸는 시민도예가' 상설전시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남원시민도예대학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수강생 62명이 제작한 총 80여 점의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종량제봉투 직접 배송 판매소 편의성 높여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판매소까지 직접 배송한다.

기존에는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사업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구입해 판매하는 시스템이었다.

공단은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면, 판매소까지 직접 배송해 방문 구매하던 불편함을 없앤다.

이에 따라 기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구매로 이루어졌던 종량제봉투 판매는 오는 24일 이후로 중단되며, 7월 1일부터는 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7월 7일부터 판매소로 배송을 시작한다.

종량제봉투 배송은 지역별로 요일 지정 배송되며, 판매소가 밀집된 봉동읍과 삼례읍은 주 2회 배송된다. 배송일은 ▲월요일: 봉동읍, 삼례읍 ▲화요일: 이서면, 구이면, 용진면, 고산면 ▲수요일: 봉동읍, 삼례읍 ▲목요일: 동상면, 운주면 ▲금요일: 상관면, 소양면, 비봉면, 화산면, 경천면이다.

현재 완주군은 약 200개소의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판매소는 앞으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전용 주문 사이트를 통해 주문 후 배송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군청홈페이지와 SNS,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종량제봉투 구매방법을 설명한 카드뉴스 및 주문링크'를 게시하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국회서 예산확보 총력전

국회의원 방문 현안 협의
경찰수련원 등 반영 건의

최경식 남원시장이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및 현안사업 협의를 위해 20일 국회를 방문해 강경숙 의원을 만나고 있다. <사진=남원시>

최경식 남원시장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협의를 위해 20일 국회를 방문했다.

최 시장은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부처 예산안에 일부 및 미반영된 국가예산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해왔다.

국회를 방문한 20일은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남원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박희승 지역구 의원을 비롯하여 정동영 의원, 이성윤 의원, 이원택 의원 등 전북자치도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2026년도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에 다 같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남원경찰수련원 신축(442억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협력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190억원) ▲국제 드론레이싱 경기(DFL) 운영 시스템 구축(43억원) ▲남원 도자전시관(170억원) ▲남원 현대옻칠목공예관(152억원) ▲남원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조성(490억원) 등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 222% 확대

제1회 민생경제돌봄협의체
공실 해소·관광활성화 등 논의

남원시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및 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 점검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남원시 민선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관계자, 청년, 여성,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카드수수료 지원, 상가 환경 개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총 38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을 공유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22% 증가한 규모다.

또한, 특례보증 기간연장, 관광지 활성화 방안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 전통시장 공실 해소 방안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의견도 수렴·공유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돼, 참석자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활발히 제시했다. 남원시는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높은 민생경제 지원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보건소, 재난대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남원시보건소 신속대응반은 19일, 남원시 요천 일원에서 남원소방서 주관 실시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관련 기관·단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처치와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시행됐다.

훈련에는 남원시보건소를 비롯해 남원소방서, 전북대학교병원 DMAT팀, 남원시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 구급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댐 수문 고장으로 인한 요천변 수해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각 기관의 협업 아래 현장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 △사상자 분류 및 현황판 작성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및 병원 이송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사고 초기부터 부상자 분류, 응급처치, 병원 이송, 현장 지휘·통제 등 전 단계에 걸쳐 통합 대응 절차가 이뤄졌으며, 남원시보건소 신속대응반은 현장에서 응급환자 이송 지원 및 의료자원 연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남원시보건소 신속대응반은 지역 내 재난·재해 발생 시 초동 대응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례 '문화여행', 근대의 기억을 깨우다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서
완주형 체류관광모델 발전

오는 28일, 100년 전 완주의 시간 속으로 떠나는 문화여행이 펼쳐진다.

20일 완주군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옛 감성으로 풀어낸 근대역사 문화여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대어때, 추억을 완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후정리 패션-쇼', '뮤지컬 〈영웅〉 갈라쇼', '근대유산 해설버스', '양곡 밀정 RPG 게임' 등 몰입형 체험과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구성한 공연들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완주군 삼례읍 일원의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해 체험·교육형 관광 콘텐츠로 가득 채워진다.

근대 먹거리존, 로컬푸드 장터, 후정리 근대체험관, 추억의 유랑극단, 만요공연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할 예정이며, 근대유산 해설버스 운영을 통해 개별 방문이 어려운 대간수로, 금와습지 등을 찾아 완주군의 근대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서 근대문화유산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공간을 탐방하며 삼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소정의 기념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완주의 역사를 담은 보부상 근대 퀴즈마당, 삼례백년영사관(무성영화 및 아카이빙 영상 상영), 후정리 근대체험관(포토존·의상체험 등)은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히 재현한다.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에 선정된 논산·부여·익산·완주 4개 시·군의 공동 홍보관도 함께 운영되며, 완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장터와 후정리 근대체험관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관광경제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행사는 근대문화유산을 현대적 감성과 융합해 완주만의 체류형 관광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운영

장애인체육관 등 2차 운행
주민 맞춤형 전문의료 제공

순창군은 지난 19일 순창읍 장애인체육관과 금과면 체육관에서 '제2차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운행하며 주민들에게 맞춤형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순창군과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 순창농협(조합장 김성철), 서순창농협(조합장 설득환) 등 4개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김창완 부본부장, 순창군지부 신종철 지부장, 순창농협 김성철 조합장, 서순창농협 설득환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날 왕진버스는 순창읍과 금과면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구강검사 및 교육, 검안·돋보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비를 증액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디지털 경로당 시대 '화상시스템 구축'

스마트경로당 착수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 화상 제공

완주군은 지난 20일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마을·아파트 경로당 100곳에 화상시스템을 설치해 콘텐츠를 송출하는 스튜디오를 조성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여가 활동·복지·건강 강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김영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장을 비롯해 13개 읍·면 분회장, 유관부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지난해 과기부가 주관한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시설 내 온라인 화상회의 설비 등을 구현하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해 A등급의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공모에 선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군은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경로당 이용자가 고령층임을 고려해 사용자 측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완주=김명곤기자

설구호 ㈜장안 대표, 순창군에 500만원 고향사랑기부

순창군은 지난 19일 순창 금과면 출신 기업인 설구호 ㈜장안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순창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안은 2005년에 설립된 토목 및 조경공사 전문 건설업체로, 설 대표는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과 (사)한국조경학회 호남지회 식물산업전 추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장학금과 후원금 기탁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며 기부 실천의 모범을 보여왔다.

특히, 설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향인 순창군에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독서문화진흥 공모전 '책에 나를 담다'

전 국민 대상 독서문화 확산
손편지 쓰기·독서사진 공모

순창군이 독후표현 능력 향상과 일상 속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8월 22일까지 '순창군 독서문화진흥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에 나를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책, 마음을 담다' 손편지 쓰기,'책, 시간을 담다' 독서사진 등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책, 마음을 담다' 손편지 쓰기 부문은 학생부(초·중·고등학교)와 일반부로 나뉘며, 순창을 배경으로 집필된 최초의 한글소설인 '설공찬전'을 읽고 책 속 인물에게 손편지를 작성해 순창군립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책, 시간을 담다' 독서사진 공모전은 도서관, 서점, 여행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책과 함께한 순간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진 촬영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의 시상은 두 부문별로 각각 진행된다. 손편지 쓰기 부문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 원) △우수상 2명(각 20만 원) △장려상 3명(각 10만 원) 등 총 12명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200만 원이다. 독서사진 부문은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 원) △우수상 2명(각 20만 원) △장려상 3명(각 10만 원) 등 총 6명을 시상하며, 총상금은 100만 원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 총 25필지 심의 26일 조정 공시

진안군은 지난 19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5필지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1명의 위원, 담당 감정평가사가 참석해 각 필지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의신청 필지는 현장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가의 적정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으며, 개별공시지가와 함께 개발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종료시점지가도 함께 논의됐다. 심의 결과, 조정된 필지는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조정된 공시가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 부남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성료

무주군 부남면 제32회 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가 지난 21일 부남면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됐다.

부남면이 주최하고 부남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주민들이 준비한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화합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9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평마을 김종오 씨, 상평당마을 이화경 씨, 율소마을 심미순 씨, 하굴암마을 김차연 씨, 대소마을 이연옥 씨가 무주발전과 지역주민 행복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식암마을 유상근 씨, 율소마을 곽신근 씨, 대소마을 유영보 씨, 김종수 무주농협 부남지점장이 부남면장 감사패를 받아 의미를 더했다. 재경무주군민회에서도 참석한 가운데 김철호 회장이 부남면 발전 기금 1백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강명관 부남면장은 "금강의 고장, 부남이 오늘 면민 화합의 장을 계기로 지역발전에 불을 댕기기를 바란다"라며 "부남이 K-관광수도를 지향하는 자연특별시 무주의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면민 모두가 한마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교육정책 변화 반영 입시 전형 전략 설명회

임실군이 봉황인재학당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분석법과 대학별 입시 전형 전략'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분석법과 관리 요령 △대학별 입시 전형 전략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 △수능 변화에 따른 성적 관리법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전략 및 학습법 등으로 입시 전문가인 홍정의 중앙에듀 대표를 초청, 강연했다.

한편, 임실군은 교육설명회에 앞서 임실봉황인재학당에 재학 중인 중학생 150명 및 고등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및 대면 컨설팅을 실시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이해를 높였다.

개인별 컨설팅은 성격, 흥미, 능력, 영역별 선호도 등 진로 탐색 검사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춘 정보를 제공했으며, 대입 준비 역량을 강화해 많은 학생 및 학부모가 진로와 연계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크게 호평했다.

임실교육지원청 유효선 교육장은 "임실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관내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이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건강한 교육 생태계 구축과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성수산 레포츠시설, 완공 '눈 앞'

심 민 임실군수, 현장점검
총사업비 60억 투입
휴양·복합체험단지 조성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임실군의 대표 명산인 성수산 왕의 숲에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이 곧 들어선다.

군은 성수산 자연휴양림에 조성 중인 산림레포츠시설을 이달 말 완공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준공과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지난 19일에 심 민 군수는 성수산 자연휴양림의 사업 현장 주요 시설물을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성과 운영 시 필요 사항, 보완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준공되는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주요시설은 산림레포츠 체험지원센터와 트리탑전망대, 외줄이동시설(짚라인),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이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산림휴양관 본관은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세미나실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 2개와 2층과 3층 각각 5실씩 총 12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연과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맨발 걷기 길도 개장했다. 맨발 걷기 길은 총연장 1.15km 거리로 2구간의 황토길로 조성돼 맨발로 걷는 즐거움과 건강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로써 성수산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과 복합체험단지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준공 전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한치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며"충분한 시 운전과 운영매뉴얼을 수립해 추후 산림레포츠시설 개장 시 이용객들에게 이색 체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산불 피해목 자원화 방안 모색

지자체·목재·에너지업계
산불 피해목 활용 간담

무주군이 지난 3월 발생했던 부남면 대소리 일원 산불 발생 지역의 피해목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무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주군과 무주 목재펠릿공장, 군산 유니드비티플러스, 남원산림조합, 무주군 산림조합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불 피해 규모 등의 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한 참석 기관 및 업체별로 활용 계획을 제시하는 등 자원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불 피해 조기 극복이 가능하도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산불 피해목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특히, 산불 피해목 중 이용이 가능한 목재는 건축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판·펄프용, 보드용, 에너지용 등 단계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승준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장은 "이번 간담회는 산불 피해지 복구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목을 활용해 숲을 되살리고 탄소중립 실천 기회를 여는 자리였다"라며 "무주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내 협력 기반을 조성해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산불 피해 면적은 232.8ha로 주요 피해 수종은 참나무류와 소나무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계획에 따라 10월부터 벌채하고 내년 3월부터는 조림에 들어갈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장마철 재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최훈식 군수, 대응체계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각종 공사현장 등 재해 우려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와 그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해 우려지역에 선제적 점검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군수는 장수누리파크 캠핑장을 시작으로 △요전 소하천 정비공사 △죽림교 재가설 및 선형개선 사업 △지방하천(오수천) 유지관리사업 △장수읍 수분리 산사태 위험지역 및 개정저수지 안전점검 △시설원예하우스 현장을 점검했다.

각 현장에서 임시 배수시설, 자재 보관상태, 안전펜스 설치상태, 주민 긴급대피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최 군수는 "최근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장수군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고 비상 시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해 장마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고원몰, 소비자 만족도 높인다

소비자·입점업체 설문조사
업체 운영 지원 파악·개선

진안군이 공식 유통 채널인 '진안고원몰'을 더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쇼핑몰로 만들기 위해 소비자와 입점업체(또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진안고원몰'을 이용해 본 소비자들이 느낀 만족도나 불편했던 점,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 등을 솔직하게 듣고, 입점 업체들의 운영상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문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참여는 진안고원몰 스마트 스토어에 게시된 팝업창을 통해 링크로 접속해 할 수 있고 입점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설문 내용은 주로 △이용 만족도 △불편사항 △개선 요구사항 △추가로 원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참여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이 제공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와 입점 업체 간 인식 차이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남수 진안군청 농축산유통과장은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더 편리한 쇼핑 환경을, 입점업체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달군 뜨거운 스포츠 열기

유소년 축구대회
시·도대항 검도대회 성황

'2025 무주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12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검도대회'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무주군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체육회가 주최, 한국축구클럽연맹이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후원한 2025 무주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21일과 22일 등나무운동장, 무주중학교, 적상면체육공원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48개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해 첫날 그룹별 예선 리그, 둘째 날 준결승 및 결승 경기를 펼쳤다. 1일 기준 약 1천8백 명(선수 820명, 대회관계자 300명, 기타 680명)이 무주를 찾았다.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제12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검도대회'가 열렸다. 대한검도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검도회와 무주군검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 7백여 명이 7개 부문의 단체전과, 9개 부문의 개인전에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검도대회로 양일간 무주를 찾은 방문객은 선수와 가족, 대회 관계자 등 1천7백 명으로 집계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가 모든 종목을 아우르는 스포츠 강군으로 자리매김해 스포츠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대회 환경과 훈련 여건을 만드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상반기 신속집행 '총력'

임실군이 지난 17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심 민 군수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회의(5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 실적이 저조한 2천만원 이상 152개의 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개별 사업별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 방안을 공유했다.

심 군수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의 기본·실시설계와 공정별 일정을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군은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신속집행제도 활용 지침에 따라 선급금 집행 활성화, 긴급입찰, 계약·적격심사 단축,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 가속화가 필요한 만큼, 국장 주재하에 부진 사업에 대해 수시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 부서가 합심해 마지막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뜬봉샘과 수분마을 생태걷기 성료

장수군은 지난 20일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생태관광지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 생태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뜬봉샘과 수분마을'이 환경부로부터 '6월 이달의 국가생태관광지'로 선정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 군수와 군 간부공무원들이 생태관광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 군수와 군 간부공무원들은 뜬봉샘, 자작나무 숲, 하늘다람쥐 비밀정원 등 생태관광지 코스를 약 3시간 동안 함께 걸으며 느낀 점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수분마을 시니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근대문화유산인 수분공소와 마을 우물을 둘러보고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밥상'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최훈식 군수는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이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데 이어 '이달의 국가생태관광지'로 선정된 것은 장수군의 생태관광 경쟁력을 입증하는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생태관광지 내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종이팩·폐건전지 집중 수거

6월 한 달간 운영
수거 교환 물품 지원도

임실군이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위해 6월 한 달간 '종이팩·폐건전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종이팩은 고품질 펄프로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파지와 함께 배출돼 재활용률이 낮으며, 폐건전지는 분리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인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집 안에 있는 폐건전지는 마을별 또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시설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고, 종이팩은 박스 등 다른 종이류와 구분해 단독 배출해 놓으면 된다.

또한, 군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 교환 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과 폐건전지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자원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전주덕진소방서 소방교 서영빈, 전국소방기술대회 구급전술 '1위'

전주덕진소방서 소방교 서영빈(사진)은 지난 18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구급전술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서 소방교는 현장 대응력과 팀 전술 역량을 모두 인정받으며 '특별승진'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 그는 전북 소방의 자부심이자 전주덕진소방서 구급대 전체의 품격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2022년 임용 직후부터 누구보다 빠르게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서 소방교는 '업무범위 확대 특별구급대' 자격을 취득하고, 스마트의료지도 교육까지 이수했다. 이듬해 Pre-KTAS(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자격을 취득하며 한층 더 전문화된 환자 평가 능력을 갖췄다.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을 보여주고, 사무실에서는 후배와 동료를 위해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며, 그의 하루는 늘 '전문가'와 '동료'라는 두 이름 사이에서 분주하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이준례 교수, 복지부 장관 표창

장애인 구강 건강 증진 공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준례 교수가 장애인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준례 교수는 장애인 진료 활성화와 중증장애인 환자의 치과친료 및 전신마취 관리에 대해 공헌해 오며, 장애인 치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높이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구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북대치과병원 마취교수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촉탁 마취의로 근무하고 있는 이준례 교수는 정교하고 안전한 마취 계획을 바탕으로 전신마취를 통한 구강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준례 교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준례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병원>

남원시-아산시 청소년, "우정 잇고 문화 나누다"

남원시는 지난 19일부터 2박 3일 간 자매도시 충남 아산시의 초청을 받아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시와 아산시 간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의 지역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도시는 자매결연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 산서면지사협, 둘째 자녀 출산가정에 기저귀 전달

장수군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채철)는 최근 저조한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둘째 자녀를 출산한 학선리 가정을 방문, 기저귀 2박스를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협의체 위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협의체는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한전MCS 전북지사 등 15개지점, 전몰군경유족회에 성금

23년부터 호국의 달 기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자치도지부(김영도 지부장)는 지난 19일 한전MCS(주) 전북지사 외 관내 14개지점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업무협약 체결 및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전MCS(주) 전북지사 외 14개 지점은 '23년부터 호국보훈의 달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금에는 한전MCS(주) 전북지사를 비롯해 관내 14개 지점 △전북지사직할지점(지사장 김성호) △익산지점(지점장 최창운) △남전주지점(지점장 조금혜) △군산지점(지점장 이태주) △정읍지점(지점장 유순이) △김제지점(지점장 이상협) △남원지점(지점장 김명원) △고창지점(지점장 이윤수) △부안지점(지점장 양기철) △임실지점(지점장 김용관) △진안지점(지점장 김명심) △장수지점(지점장 김승백) △순창지점(지점장 신승렬) △무주지점(지점장 최근호) 전직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최준호 기자

군산 나운3동 안전우산네트워크, 상습침수구역 합동 예찰

나운3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소영)는 '안전우산네트워크' 관계 기관과 함께 빗물받이 점검 등 장마철을 대비한 상습 침수구역 예찰 활동을 진행했다.

'안전우산네트워크'는 행정·경찰·소방·대학·주민협의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나운3동 재난안전협의체로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하에 활발하게 운영중이다.

합동 예찰은 군산대학교 앞 상가 지역 및 미룡대명아파트 일원에서 펼쳐졌으며, 행정복지센터·통장협의회·군산대정문원룸협의회·예비군중대본부·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조미영 대표·김양기 성내노인회장, 고창군에 인재장학금 기탁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에 고창인재 키우기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장학금 기탁식에는 새고창장례식장(대표 조미영) 500만원, 김양기 성내면 노인회장이 100만원을 전달했다.

새고창장례식장 조미영 대표는 지난해 부친인 故인암 조병채 원장(고창병원 설립자) 6주기를 기념하며 장학금을 기탁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원로회원·윤리위원 화합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9일 세종필드 GC에서 회장단·원로회원·윤리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원·윤리위원 친목·화합의장'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원로회원 및 윤리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원로회원·윤리위원 상호 간 화합을 위한 친선행사를 진행하고 협회 주요 업무 동향을 설명했다.

소재철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사 지원과 함께 신규물량, 공사비 확보, 규제 개선 등 현안을 건의하고, 표준품셈 개정을 통해 적정 공사비 책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정읍 고엽제전우회, 현충원 찾아 안보의식 고취

정읍시 고엽제전우회가 국립대전현충원과 독립기념관 등에서 안보현장체험을 진행하며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고엽제전우회 정읍시지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19일 회원 65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독립기념관, 국립세종수목원을 차례로 방문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안보현장체험을 진행했다.

김연수 회장은 "이번 현장체험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서, 전우들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조국을 위해 싸웠던 자긍심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호국보훈의 가치를 계승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강민주 청소행정팀장, 친절봉사 수상금 1백만 원 기탁

산불 복구와 친절한 행정으로 주목받은 정읍시 공무원이 받은 상금으로 또 다른 나눔을 실천했다. 정읍시 자원순환과 강민주 청소행정팀장은 최근 제27회 친절봉사대상 공무원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19일 시상금 일부인 100만원을 (재)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강 팀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큰 영광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다"며 "인재 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一事一言〉

위기에 빠진 전북 경제, 돌파구를 찾자

김관춘
논설위원

전북자치도가 최근 글로벌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일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등 9개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협의 TF 킥오프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의 방향성과 조기경보지수 개발을 포함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한 첫걸음으로, TF를 출범시킨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타 시·도에 모범이 될 만한 선제적 시도이자 바람직한 정책적 모색이다.

오늘날 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의 연속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최근의 이란-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리스크가 겹치며 전 세계는 저성장·고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역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현상'과 건설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KDI 등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조차도 올해 성장률을 1%대에서 0.8%로 낮춰 전망할 만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 같은 현실은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대책만으로는 지역 경제의 고유한 문제와 위기를 제때 진단하고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북도가 '지역특화형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배경과 그 시의성이 강조된다. 전북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농생명 산업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가 전체 경기 흐름과는 다른 양상의 변동성을 보이기 쉽다. 이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조기경보체계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이번에 전북자치도가 제정한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는 지역단위 경제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법제화했다는 뜻이며, 지역경제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 기반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실무협의 TF에서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은 매우 합리적이고도 필요충분한 접근이다.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경제의 변화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밀한 경제지표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북자치도 단독이 아닌 통계청,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기 침체의 전조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경보지수 개발이 요구된다.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예측 가능성과 실질적 정책 대응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행정 편의'가 아닌 '현장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기 대응은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닌, 실제 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민과 기업들의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정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번 TF 출범은 그런 면에서 전북의 경제정책이 중앙 주도형 대응에서 벗어나, 독자적 분석과 판단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로 나아가려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실무협의 TF에 다양한 경제 전문가를 참여시켜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구조를 설계한 점은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나아가 TF 활동이 단발성 자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반영하는 상시체제로 정착된다면, 이는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금은 과거처럼 중앙정부의 성장 전략에 의존하거나, 낙수효과에 기대어 안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위기를 관리·예방하며,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북자치도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지역정책이 아닌, 우리 경제 전체의 건강한 분권적 재편을 위한 중요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행력이다.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전북자치도는 TF 논의 결과를 구체적 정책으로 정리해 내는 추진력과 함께, 행정 내부의 시스템화, 도의회와의 협력, 지역 기업 및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춘 '살아있는 체계'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TF 출범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도민 전체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전북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놓치고 침체의 나락으로 빠질 것인가. 경제는 타이밍과 선택의 문제다. 이제 전북의 전략적 선택이 도민의 미래를 좌우할 시점에 서 있다.

사 설

소비쿠폰,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되길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20조2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편성했다. 그중 절반 이상인 11조3천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사업에 집중 투입한 것은 침체된 내수를 끌어 올리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불황과 고금리, 고물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단비와 같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여력의 한계 속에서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정책을 우선순위에 둔 것은 타당한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쿠폰 지급이다. 건강보험료와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약 90% 국민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도 별도의 지원이 마련됐다. 이러한 차등·보편 혼합형 구조는 재정효율성과 형평성, 소비 촉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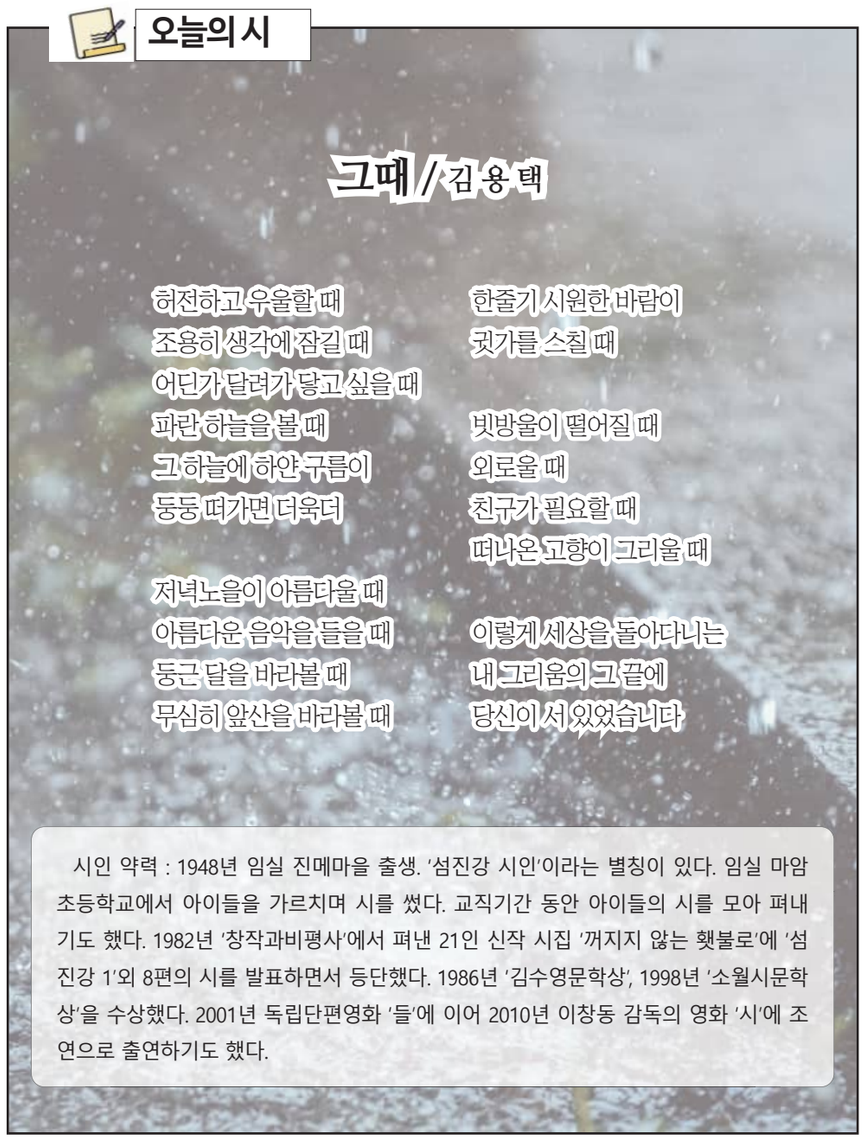
전북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관광·자영업·서비스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고 대기업 유치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만큼 내수 소비 진작이 지역경제 회복의 유일한 활로가 되기도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침체는 오랜 기간 지속돼 왔고,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로 지역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이러한 지역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선택지를 넓힌 점도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하고, 냉장고·에어컨 등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숙박·영화 할인쿠폰 등 다양한 소비 진작 수단을 병행 추진한다. 하지만 쿠폰 사용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보다는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 등 지역 상권에 집중되도록 철저한 사용처 관리와 부처 간 협업이 수반돼야 한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용처가 왜곡되면 실질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부의 정책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 진작 유도 프로그램과 상권 회복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번 소비쿠폰이 일회성 선심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추후 체계적인 효과 분석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비 증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책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며 사람은 신뢰와 희망을 먹고 움직인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공평한 민생회복'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재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이 다시 생기를 찾고, 소비의 온기가 도시와 농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후속 집행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위기에 빠진 지역과 민생을 되살리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오늘의 시



그때 / 김용택

허전하고 우울할 때
조용히 생각에 잠길 때
어딘가 달려가 닿고 싶을 때
파란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둥 떠가면 더욱더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귓가를 스칠 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할 때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때

저녁노을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둥근 달을 바라볼 때
무심히 앞산을 바라볼 때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내 그리움의 그 끝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진메마을 출생.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임실 마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교직기간 동안 아이들의 시를 모아 펴내기도 했다. 198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횃불로'에 '섬진강 1'외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2001년 독립단편영화 '들'에 이어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 독자광장 |

개인형 이동장치(PM) 올바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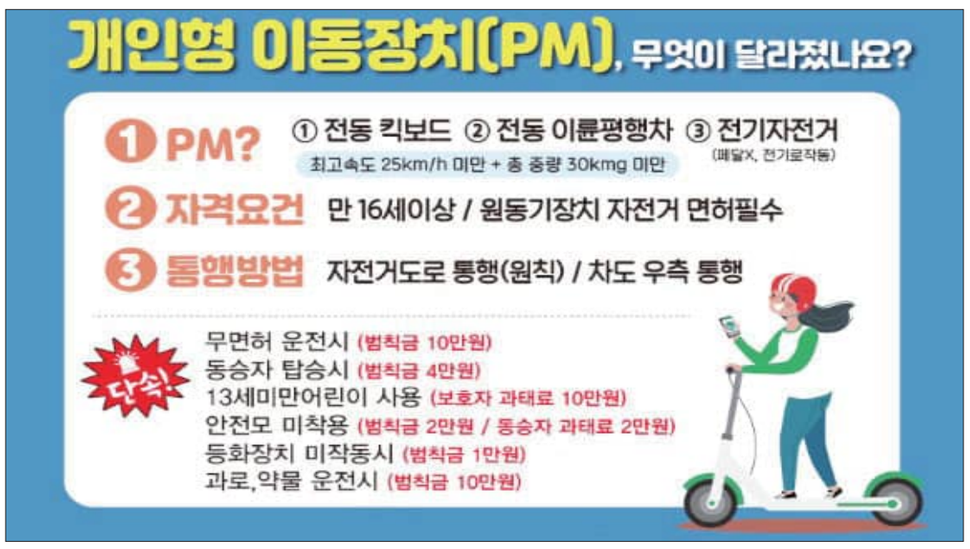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용의 편이성, 접근성 등을 앞세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용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점은 이용하기 위해 해당 어플을 설치하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이용료만 결제하면 언제든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사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직장인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그리고 여가 활동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은 사용량이 증가한 만큼 운전자들의 법규위반과 관련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몇가지 주의할 사항을 알아야 한다.

첫째, 운행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운전면허 소지와 안전모 착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안전모 외에도 장갑, 손목 보호대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안전 운전을 위한 수칙으로는 승차 정원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이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의 경우에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의 경우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며, 이를 위반시 범칙금 10만원과 측정 불응시 13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이용 후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장치가 넘어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차 반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스스로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개인들이 안전모를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스스로를 보호해주길 기대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지혜 경사

문화재열전

순창 객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정치국방, 궁궐·관아
-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순창군 순창읍 순창7길 40 (순화리)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완주’, 삶의 질 전국 1위

“우리가 지향하는
완주의 미래는
도시의 품격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의 도약”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전국 농어촌 군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삶의 질이라는 것은 단기 정책만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완주는 인구 10만 시대를 준비하면서 일자리, 교육, 정주여건, 문화 인프라를 끌어 올려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 배경에는 과감한 투자와 세밀한 정책 설계가 있었다. 신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문화 기반 확충, 주거단지 조성, 보육 지원 등은 모두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됐다.

단순히 외형적인 인프라 확장에 그치지 않고, 삶의 실질적인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특히, 지역 내 산업단지의 고도화와 연계된 배후 주거단지 개발, 보육시설 확충 등은 교육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군수는 “완주는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니라 지역에 남고 싶은 청년, 돌아오고 싶은 가족, 안정적인 노후를 찾는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도시가 되고 있다”며 “이것이 완주가 가진 진짜 경쟁력이다”고 힘줘 말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완주의 미래는 도시의 품격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의 도약”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도시 완주 실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10만 시대를 맞고 있는 완주군이 전국 농어촌 군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 꼽혔다.

인구 지표는 경제, 문화, 복지, 주거 여건 등 모든 수치를 총괄하는 지표로 완주군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방증하는 데 이번 삶의 질 지수로 완주군의 경쟁력이 더욱 명확해졌다.

전국 지자체 대상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지역활력 1위 평균 점수보다 크게 웃돌아

△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최근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전국 1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발표했다. 이 결과 완주군이 전국 1위로 선정됐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고 있는 통합 지수로 완주군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농어촌 군 지역의 삶의 질 종합지수 평균은 37.26점으로 나타났지만 완주군은 무려 12.39점이 높은 49.65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완주군은 지역활력,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지역활력 영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군은 지난해 지역활력 영역에서 4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평가에서 1위로 껑충 뛰었다. 보건복지 영역은 5위, 문화공동체 영역은 8위를 기록했다.

농어업위는 완주군이 인구증감률, 청년인구 비율에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고, 기대수명과 배우자 만족도에서 지수가 높게 산출되는 등 전 영역에서 고르게 우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 인구·산업·삶의 질 모두 잡다

그동안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 활발한 기업유치, 대규모 국책 사업 선정 등으로 남다른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 같은 노력은 인구 증가로 나타났다.

청년인구도 4월 말 기준 2만 9,685명으로 전체 인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임여성 비율도 2022년 12월 기준 1만 6,230명에서 올해 4월 기준 1만 7,705명으로 9%가 늘었다.

완주군의 인구증가, 청년인구 비율 증가는 농어촌 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높게 책정된 사업체 수에서도 완주군은 4위를 기록해 두각을 나타냈으며, 1인당 GRDP 9위, 재정자립도 6위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가 전국에서 단 3곳만 선정한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따내고, 322억 원 규모의 ‘랜드마크 조성사업’에도 추가로 이름을 올리며 산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문화선도 산업단지 사업을 통해 경제축인 완주산단이 크게 업그레이드될 예정으로 신규 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문화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인근 둔산지구, 삼봉지구의 거주여건도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이같이 뛰어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완주군은 수소 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해 전국을 넘어 세계시장을 노리고 있다. 특히, 수소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으로 완주군이 선봉장에 서있다.

특히, 2024년 7월 기준 수출 규모 전북 3위, 근로자 평균 급여는 전북 1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도 독보적이다. 완주군은 통계청이 귀농어귀촌통계를 발표한 2015년 이래 도내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완주군은 전북 전체 귀농귀촌 1만 7,417가구 중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 문화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반다비체육관, 어린이체육관을 준공했으며, 파크골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2024년에는 순교자 유해가 발견된 이서면 남계리 유적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는 해당 유적 정비와 함께, 전북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초남이성지는 교황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남이성지는 호남 천주교의 발상지로, 한국 가톨릭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장소다. ‘호남의 사도’로 불리는 유항검의 생가터와 교리당, 그리고 그와 가족 순교자들이 매장된 곳이다.

/완주=김명곤 기자